

상호문화교류학습을 통한 글로벌 장소감 형성 - 동남아시아 지역이미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차 보 은

서울 옥수초등학교

I. 서론

시·공간의 압축으로 가속화된 지구화의 도래는 세계의 많은 장소를 연결 시켰으며 이러한 연결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글로벌 장소감 형성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교육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데 이는 ‘상호성’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교육이다.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상호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능력과 더불어 타문화와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글로벌 교육의 동향은 ‘상호관계성’과 ‘상호연대성’의 감각을 키우는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호문화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글로벌 장소감을 형성하고 세계의 상호 의존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적 연대감과 상호의존성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미지를 사전조사한 결과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이 문제의식으로 다가왔다. 동남아시아는 한국 사회 약 100만 외국인¹⁾ 중 최대인구이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교육적 연구는 찾기 힘들며 교과서 속 위치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미약하고 제한적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균형 잡힌 지역 이미지 형성을 통한 올바르고 편견 없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학습이다. 이에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 되어져가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와 글로벌 장소감의 유의미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상호문화교육의 논리와 상호문화교류

상호문화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문화주의’ ‘상호문화적’ 관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호문화’적 접근의 목적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 자체를 배우는 것, 다시 말해 타인을 특수한 존재, 보편적인 존재로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관찰하고 규명하면서 서서히 구성되고 생성되어지는 이론이다(Abdallah-Pretceille, 1999; De Carlo, 1998).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가 개별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정체성

1) 법무부 산하 외국인 정책 본부에서 실시된 조사 전국 등록 외국인 현황 985,923명 (2013년 12월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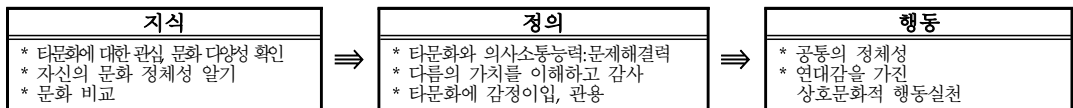
과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고 연대감 형성을 도모하는 교육이다. 복수의 특징을 가진 개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문화를 상호 교환하고 그것을 또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여기에 다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을 재구성, 변화시키려는, 즉 상호문화성 자체를 과정으로 보는 교육이다(細川²⁾, 2011).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적 목표는 상호문화능력의 함양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상호문화학습의 과제이자 목표는 상호문화능력·역량의 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박정희·이병철·최대희, 2010). 학자별 상호문화능력을 지식, 정의, 행동 요소로 구분하여 보았다.

<표II-1> 상호문화능력의 하위 영역에 따른 구분

Shinschke (1995)	Byram (2001, 2002)	Bennett&Bennett (2003)	Ouellet (2002)	이종하 (2006)
지식				
고유문화와 낯선 문화 사이를 증재하는 능력	상대방에 대한 지식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아는 것	타문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문화 사이의 공통점·차이점을 찾아내는 능력
고유한문화에 대한 생각을 상대화하는 능력	상호 비교, 관계성의 이해	이해력 신장을 위해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의 발전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심리 구조에 대한 이해	타문화 관점에서 자신의 사고, 행위, 태도 및 관념의 문화적 종속성을 성찰해내는 능력
정의				
다양한 행동방식을 접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발견하고 상호 의사소통하는 능력	타자와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타문화 사람들과 발전된 의사소통 능력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 전략을 수립, 실천 능력
관점들을 수용하고 감정 이입할 수 있는 능력	호기심, 다양성 수용 등 태도의 능력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	문화다양성의 맥락에 더 적절한 태도	타문화의 비판적 이해, 인정하는 능력
행동				
나와 타문화 정체성의 인지와 참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	사회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능력, 정체성과 소속감의 발달	타문화 사람들과 협동하여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	
		'우리'의 학습에 적극 참여하는 것		

학자들의 목표가 공통적으로 보면 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를 성찰하고 상호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중개의 과정을 거쳐 타인, 타문화와 의사소통하는 능력, 그들을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관용의 가치적 태도 함양을 통하여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 연대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의 단계로 발전, 발달해 나간다. 그 흐름을 표로 나타내 보았다.

<표II-2> 상호문화능력(교육)의 단계



하위 영역별로 정리를 해보았으나 지식, 정의, 행동적인 영역이 구분되어 학습되어지거나 나타난다고 하지는 않았다. 단지 타문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정의적 영역 즉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등과 같은 능력의 함양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연대감과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Oxfam(2007)에서 제시하는 국제교류의 목표는 자신

2) 細川(2011)는 일본에서 사용되어지는 'interculture Education'의 異文化間教育(이문화간교육)이라는 번역이 다문화 공생 사회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괴리가 있음에 문제제기를 하며 'Inter'의 상호성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상호문화교육이라고 해석되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을 인식하고 타인과 타문화의 이해와 존중을 기본으로 상이한 방식과 상황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과 세계와의 상호 연관성, 관련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할 지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호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교류의 실적은 본연의 목적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김다원, 2013: 180-183). 상호의존성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인지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국제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류대상국에 대한 어설픈 지식, 만남의 기회를 넘어 타인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공통으로 국제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상호문화적 ‘행동’ 력이 필요하다.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가 간 교류의 실시는 궁극적인 목표 도달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틀이며 대안이다. 이에 연구자는 상호문화적 접근을 통한 국제교류를 ‘상호문화교류’로 명명하고 구체적인 실천단계와 행동 영역들을 연구개발하여 교류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변화되는 인식의 분석 준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지역 이미지의 개념 체계와 동남아시아의 지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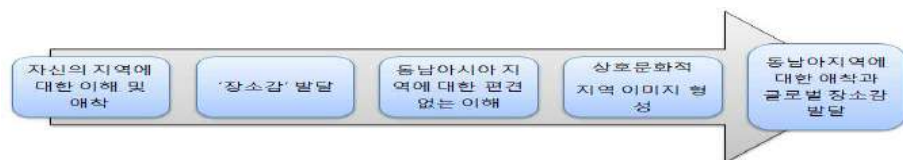
가. 지역 이미지의 개념 체계

이미지는 특정한 사물이나 자연, 사건과 같이 직접적으로 접하는 대상으로 형성 되기도 하지만 확장되어 명확한 실체는 없는, 문화, 국가와 같은 집합적 수준의 사물을 대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집합적 수준의 사물의 대상을 ‘지역’ 또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 생성되는 이미지를 ‘지역 이미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미지란 시원적(original) 개념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현실적인 존재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고 형상되어진 객체적 존재이다(Whitehead, 1929, 오영환 역, 2009). 따라서 이미지는 재생산이고 인위적이다. 서남아시아 지역을 과거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렀던 것이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칭하는 것은 모두 과거 그 지역의 역사적 가치나 강성함이 이미지화된 단어들이다. 글로벌화로 생성되는 정치적 결합, 초국가적 연합들의 움직임은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서 지역(region)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확산시켰다. Cresswell(2004: 47-53)은 어떤 장소가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에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힘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Pred(1984: 280-290)에게 장소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항상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적 의미의 ‘지역(region)’은 인간에 의하여 특정한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사회적 장소이며 이것은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 지역주민, 특정 의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이미지를 인간과 지역의 상호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바라보는 방식, 지역에 대한 장소감, 심상지리·지오멘탈리티로서의 지역이미지의 세 가지 접근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첫째, 바라보는 방식으로서의 지역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다. 이는 Berger(1972)의 이미지 정의를 통하여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미지란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산된 시각으로 인공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Lynch(1960: 6-7)는 장소에 대한 이미지는 관찰자, 둘러싼 환경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고 인간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그것들을 선별하고 조직하며 그가 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미지는 인간에 의하여 걸러진 개념의 입력과 끊임없는 상호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그 형성된 이미지는 다시, 보는 것을 제한하고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설명은 지역이라는 장소가 인간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생겨난 것과 같이 장소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기는 것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derson(1991)은 캐나다 밴쿠버의 차이나타운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밴쿠버의 차이나타운은 단순히 중국적인 것의 상징이 아닌 차이의 장소로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미지화 되었다고 주장한다(Cresswell, 2004 재인용). 백인 엘리트들은 차이나타운을 오물, 질명,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찬 악과 부패의 중심으로 보았고 자연스럽게 ‘중국인’이라는 인종적 규정은 차이나타운이라는 특정 장소와 동일시되었다. 앤더슨은 어떻게 ‘차이나타운’이 장소를 규정하는 힘을 가진 자들(미디어, 정부)과 협상 결과가 되었는지 보여준다. 어느 사회나 미디어의 영향은 크다. 특히 소수자와의 직접 경험이 적을수록 미디어의 영향은 크다(Ivory, 2009; 정의철, 2013 재인용). 한국 미디어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표면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사건을 부각, 혹은 온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정의철, 2013). 이러한 미디어의 편향적 시선은 관찰자들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특정 장소와 지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지역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 지역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소를 바라보는 방식은 물론 개인적인 경험과 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장소와의 상호작용은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들의 힘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바른 장소 경험을 하고 진정성 있는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번째, 장소감으로서의 지역 이미지는 지역에 대한 애착감 형성이다. 장소감(sense of place)이란 일반적으로 상이한 장소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는 정서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장소와 인간이 다양한 경험과 태도, 매체에서 빌려온 이미지들에 의해 생성된 장소 정체성과 인간인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이다(Relph, 1976, 김덕현 외 역, 2005; 권영락·황만익, 2005) Tuan(1977)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공간의 어떤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애착을 가지게 되면 그 공간은 장소가 되고 친숙함과 편안함, 양육과 안전의 보장, 오랜 시간 동안의 편안한 즐거움에 대한 기억으로 ‘장소에(place attachment)’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Tuan, 1977, 심승희 외 공역). 이는 사람과 장소 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여 개인이 좋아하는 안락 의자도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지구 전체도 장소가 된다(Relph, 1976, 김덕현 외 공역; Tuan, 1977, 심승희 외 공역). 따라서 장소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 장소의 보존,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 태도를 취하며 또한 다른 장소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영락·황만익, 2005). 학생들은 삶의 터전, 실존 공간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의미 있는 학습, ‘장소감 교육’을 통하여 장소 애착을 경험하고 장소가 불연속적이고 단일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일부이며 ‘상호 연관’된 흐름 속에서 고유성을 가지는 공간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유연한 사고를 가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남호엽, 2005; 심광택 2007). ‘나’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은 ‘진정한 장소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연관되어진 ‘다른’ 지역도 각각의 절대적 가치와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다. 즉, 세계시민성으로 세계에 대한 애착 있는 ‘글로벌 장소감’ (Massey, 1994)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II-1> 장소감과 지역 이미지 형성의 흐름

마지막, 지오멘탈리티 즉 심상지리적 지역 이미지는 조금 더 결과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오멘탈리

터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고 발전시킨 윤홍기(2011)는 지오멘탈리티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땅을 보고 파악하는 마음 틀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속성을 가지고 자리 잡은 것이며 이는 시대와 장소가 바뀌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용이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지오멘탈리티는 인간의 개인적인 경험, 관점, 가치 등 각자의 방식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이미지화된 결과, 지역에 대하여 학습을 하고 개인적인 가치와 경험을 통하여 장소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이다. Lynch(1960: 6-13)는 모든 것은 주변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며 인간은 지역과 오랜 관계 속에서 어떤 기억과 의도에 의하여 개인마다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을 통하여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정체성과 체계성을 가지게 된 이미지는 ‘mental picture’ 라고 하고 인간과 지역에 대한 관계성의 관념은 ‘mental map’ 이라는 밑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지오멘탈리티- 마음의 틀’ 을 ‘mental map’ 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학생의 지오멘탈리티는 다른 지역을 학습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이 됨과 동시에 학습 후에 발달되고 성장되어진 학생들의 장소감을 알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나. 동남아시아의 위치성과 재발견

현재 동남아시아는 총 11개국의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들 나라는 개별 국가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지역’ 이라는 하나의 장소 단위로 내부적·외부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관찰들이 이루고 진다(조홍국, 2009: 21-22). 또한 인도인, 서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인들이 아시아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구실을 해온 곳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것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다양성을 낳았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동남아시아인을 우리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자들을 떠올린다. 한국 속의 그들의 위치가 ‘3D’ 라고 불리는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남아 신부들은 어린 나이에 농촌 노총각이나 도시 이혼남에게 ‘팔려 왔다’ 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다보니, 한국 사회가 이들의 물리적 존재는 인정할 지라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은 듯 보인다(신운환, 2008).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남아와 관련된 일련의 인식 변화들이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상과 사고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한다(김홍구, 2011: 77-80). 첫째, 정치·외교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동남아 지역은 외교적으로 양국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둘째, 경제적 재조명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중요성이 인정받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경제 상대국으로서의 위치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가지는 중요성으로 인한 재조명이다. 최근 다양한 목적과 계기를 통하여 한국과 동남아 사이의 급격한 인구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김홍구, 2011). 넷째, 문화면에서 바라본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를 논할 때 현재 가장 큰 화두는 ‘한류’ 이다. 한국인의 인식 속에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한국과의 문화적 만남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다. 동남아시아 상호문화교류와 글로벌 장소감

Massey(1994: 150-156)는 시공간의 압축(time-place compression)으로 표현되어 지는 현대 사회는 국제적인

상호 관계와 흐름에서 다양한 인간의 움직임과 이동을 만들었고 세계의 많은 장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장소감 즉 글로벌 장소감(global sense of place)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세계화는 사회적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관계들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인 모든 관계에서 개인 단위 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 공간을 넘어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단위로 뻗어가고 있다. 지구화된 사회는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아도 정치적 성향, 취미, 종교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Massey, 1994). Massey는 이러한 관계들로 인하여 장소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장소는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장소는 구분을 위한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장소는 단일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넷째, 이 모든 장소에 대한 특징이 절대 장소의 고유함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Massey, 1994: 155-156).

장소의 가치는 인간관계의 친밀함에 비롯되는 것이며 인간의 유대관계 없이 장소 자체는 아무 것도 줄 수 없다(Tuan, 2001). 글로벌 장소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경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상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국제교류는 학생들이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이러한 접촉 경험을 통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박숙경·김소희·오세정, 2011; 정영근, 2009). 상호연대감을 형성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호문화교류 학습을 통한 만남은 학생들이 지역 사람들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게 된다. 상호 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글로벌 장소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연계 인식능력과 연대감 의식이 확장되어지면 상호 연관된 정체성, 더 큰 스케일의 장소감 즉 전 지구적 차원의 글로벌 장소감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수업 계획은 크게 ‘상호문화학습’ 과 ‘지역학습’ 이라는 두 개의 큰 영역을 ‘상호문화적 교류’ 라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변화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업의 계획자인 교사가 직접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변화되는 태도를 관찰하고 오류를 분석, 수정하여 다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실행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분석 준거 자료

연구대상은 서울의 A초등학교 국제교류반 학생들 20명으로 비교적 외국어 능력과 타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구성된 방과 후 동아리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사전 이미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지역별 이미지를 한 단어로 나타내기 활동 결과이다.

<표 III-1> 연구대상의 각 지역에 대한 사전 이미지

동남아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덥다, 뜨겁다. 태양검정, 피부 볼라, 관심없음 못 사는 나라, 바다	대통령, 최고 큰 도시, 세계의 지배자 돈이 많은 나라, 돈 많은 문화, 아주 큰 나라	예쁘다, 가고 싶은 나라 봉쥬르, 에펠탑 아름다운 나라, 짱 자유, 마카롱	친구, 에너지, 짜장면 궁금한 나라, 많은 사람 이웃 나라, 큰 대륙

학생들은 미국, 프랑스 지역에는 긍정적, 호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은 알고 싶은 나라, 이웃

나라의 이미지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반면 동남아시아는 기후적인 특징 외에는 대부분 무관심 혹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두 번에 걸쳐 지역이미지 측정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역이미지는 교류를 하는 ‘지역’ 과 ‘지역 주민’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역(장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알 수 있는 장소감 측정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거리감 분석을 지역이미지 측정의 척도로 삼았다. NCCA(2004)의 상호문화교육 목표, Bennett(2011)의 상호문화요소 그리고 장한업(2009)의 상호문화단계를 바탕으로 상호문화교류를 6단계로 구성하고 단계별로 요구되어지거나 기대되는 상호문화능력별 단계를 정리하여 보았다.

<표 III-2> 상호문화교류의 단계 및 단계별 상호문화능력

상호문화적 국제교류 단계	상호문화능력 단계
세계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상황과 환경을 조성, 타문화에 관심 가지기	1단계 타문화관심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고유한 시각을 인식하기	2단계 자기 장소감
다른 행동 방식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3단계 다양성 수용
타인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비교하기	4단계 문화 간 비교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대화하기	5단계 관용(тол레랑스)
연대감을 형성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6단계 글로벌 장소감

<표 III-3> 동남아시아 지역이미지 측정문항

측정문항		
지역에 대한 지식(인지)		
1	나는 백지도에 동남아시아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할 수 있다.	타문화관심
2	나는 동남아시아에 속한 나라를 5군데 이상 말할 수 있다.	타문화관심
3	나는 동남아시아 가족의 특징을 한국의 가족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문화간비교
4	나는 동남아시아 음식 맛과 음식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양성수용
5	나는 동남아시아의 전통의상과 한국의 전통의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문화간비교
6	나는 동남아시아어로 ‘안녕’라고 말할 수 있다.	다양성수용
지역에 대한 공감 및 애착 (정의적)		
7	나는 동남아시아 친구를 만들고 싶다.	다양성수용
8	동남아시아 학생이 우리 학교의 회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용
9	나는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글이나 뉴스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	타문화관심
10	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타문화관심
11	나는 동남아시아에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아프다.	글로벌장소감
지역과 연대감 형성 및 실천(행동적)		
12	나는 학교에 동남아시아 친구가 전학을 오면 도와줄 수 있다.	관용
13	나는 동남아시아 태풍피해민을 돕기 위하여 용돈을 쓸 수 있다.	글로벌장소감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동남아시아를 소개해주고 싶다.	글로벌장소감
15	길에서 동남아시아어로 길을 물어보면 시간을 내어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알려줄 수 있다.	글로벌장소감
16	나는 지구 환경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해결을 위하여 실천적 노력을 할 수 있다.	글로벌장소감

위의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학생들을 인지, 정의 행동영역 발달 유무에 따라 3³그룹으로 나누고, 상호문화 교류단계에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연구의 과정에 따라 수업을 개선 및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3) A그룹: 인지영역-유, 행동정의영역-유/ B그룹: 인지영역-무, 행동정의영역-유/C그룹 :인지영역-무, 행동정의영역-무

IV. 연구 결과

1. 상호문화교류학습 프로그램 개발

상호문화교류단계에 따라 구성한 차시별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단원 구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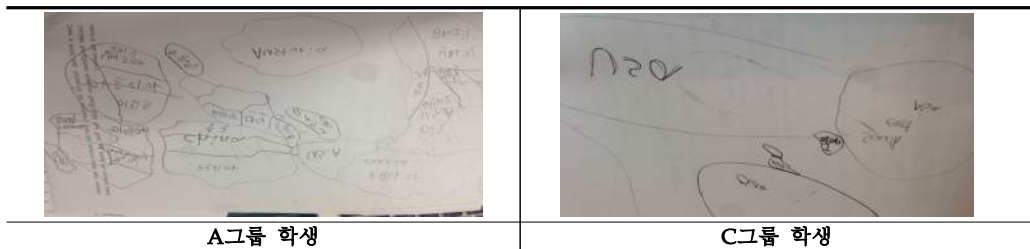
단원	차시	장소 스케일	단원 내용	상호문화 교류단계
1단원 동남아시아와 만나기	1,2	통합	· 동남아시아는 어디에 있나요?	1단계 ~ 4단계
	3		· 나와 친구의 하루 일과	1단계 ~ 6단계
2단원 식생활과 식량	4,5	나의 주변	· 전통 명절과 명절 음식	1단계 ~ 4단계
	6		· 동남아시아 음식 실습	1단계 ~ 6단계
	7		· ‘쌀’로 이어지는 한국과 동남아시아	1단계 ~ 6단계
3단원 의생활과 예술, 문화	8	마을 지방	· 한국의 전통 의상과 동남아시아의 전통의상	1단계 ~ 4단계
	9		· 한복 + 바틱 콜라보레이션	1단계 ~ 6단계
	10		· 옷장 속의 세계	1단계 ~ 6단계
4단원 주거 생활과 인간의 이동	11	국가 세계	·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전통 가옥	1단계 ~ 4단계
	12		· 가이드북 만들기	1단계 ~ 6단계
	13		· 기후변화와 인간의 이동	1단계 ~ 6단계

2. 상호문화교류학습 실천

가. 1차 실행연구 및 반성 - 1단원 : 동남아시아와 만나기

1차 실행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리적인 기본적인 이해와 심상도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다. 구글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계에서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상대적, 절대적 위치를 확인하고 지리적 특징이 생길 수 있는 기후적, 문화적 특징을 예측해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림 IV-1>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세계 심상도



A그룹 유진은 전체적인 대륙의 위치와 크기를 상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한 이해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를 동남아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페루도 포함시켰다. 또한 서남, 중앙아시아 등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념은 부족하다. C그룹 학생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며 전체 지도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 옆에

동남아시아를 그렸다. 사전 오개념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상호문화교류’ 라는 활동 자체에는 흥미와 관심을 보였으며 새로운 만남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였다.

나는 동남아시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 동남아시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와 교류를 하게 되어 조금 알게 된 것 같고 더욱 알고 싶게 되었다. (B그룹 채영이의 일지 중)

또한 일부 학생은 타인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용의 단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학생 수준 파악 실패와 상호문화단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반성이 나왔으며 ‘타자화’ ‘상대화’ 를 위한 더욱 진지한 고민이 2차 실험연구의 과제로 남았다.

나. 2차 실험연구 및 반성 - 1단원 : 식생활과 식량

2차 실험연구에서는 1차의 반성을 바탕으로 ‘타자화’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관성을 찾기 위하여 ‘명절’ 들을 소재로 잡고 명절 음식들을 살펴 보니 ‘쌀’ 이라는 공통점이 발견 되었다. ‘쌀’ 은 매일 만나는 친근한 재료이며 동남아시아 뿐 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연관이 있어 상호연관성을 찾아보고 연대의식을 가지게 하는 좋은 수업 자료이다(이정덕, 2013). 단계별 능력요소 함양을 고려하며 수업의 흐름을 계획하였다.

<표 IV-2> 상호문화교류단계에 따른 2단원(3차시) 수업의 흐름

타문화 관심	어느 나라 쌀 요리인지 맞춰보기 (우리나라 ‘죽’과 비슷하게 생긴 베트남의 ‘죽’)
↓	
자기 장소감	한국의 쌀 요리, 요리 방법, 먹는 방법
↓	
다양성 수용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쌀요리 살펴보기
↓	
문화 간 비교	조리법, 재료, 먹는 방법 등에 따라 한국의 쌀 요리와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보기
↓	
관용	동남아시아에도 다양한 쌀 요리가 있으며, 문화, 지역적 환경에 따라 재료, 먹는 방법, 요리법이 상이하고 복수의 방법이 존재함을 이해한다.
↓	
글로벌 장소감	동남아시아와 한국은 공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먹으며 ‘쌀’을 이용한 많은 요리가 존재하여 ‘쌀’로 이어져 있음을 이해한다.

1) 타문화 거부와 타문화 수용 그리고 글로벌 장소감

식문화 단원은 격심한 학생들의 태도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는데 무관심에서 타문화 관심과 애착감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와 또 다른 한 가지는 타문화 관심에서 타문화 거부감으로 단계가 오히려 하락한 경우이다.

연구자 : 이것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요리에 많이 사용하는 코코넛 밀크입니다.
 연 주 : 냄새 맡아 볼래요! (냄새를 맡은 후) 완전 맛있는 냄새난다.
 민 준 : 저도요!! 어?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 같아. 빨리 먹고 싶다.
 승 연 : 무슨 냄새야! 완전 이상해
 민 준 : 너무 맛있어요! 맨날 먹고 싶다. (혼잣 말로) 동남아시아 가서 살고 싶다.
 승 연 : 억, 우엑, 이게 뭐예요! 못 먹겠어요! 괜히 먹었어! (헛 구역질 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으며 소리를 질렀다)

식문화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친근한 소재임과 동시에 민감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음식문화’ 는 신체,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문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직접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승연이에게 코코넛 향기는 견딜 수 없는 거부감의 대상이 되어 결국 동남아시아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글로벌 장소감을 형성한 결정적 계기도

되었다.

<표 IV-3> 2차 실행연구 후 학생들의 글로벌 장소감 형성 정도

그룹	대상자	2단원 학생 일지 분석	형성 정도
A 그룹	유진	인도네시아는 비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늘어나고 있다니 놀랍다. 소아비만 문제는 세계가 주목해야할 만한 세계문제라고 생각한다.	상호성 이해 글로벌 장소감
B 그룹	서은	모든 것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동남아시아, 주식이 '쌀'이라는 것을 알고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밥을 좋아하는 데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이 좋다.	지역에 대한 애착과 공감
	채영	명절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 동남아시아가 좋아졌다. 더 친해지고 싶다.	다양성 수용 및 애착
C 그룹	연주	비만은 우리나라만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 비만이 다른 나라도 같이 걱정하는 문제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 연대의식
	민준	동남아시아 음식과 한국 음식을 동남아 친구들과 같이 먹고 싶다.	다양성 수용

다. 3차 실행연구 및 반성 - 3단원 : 의생활과 예술, 문화

3단원에서는 우선,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전통의상을 비교하고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인 바틱(Batik)의 이해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되어지는 예를 살펴보았다. 바틱의 유네스코 등재에와 관련하여 각 나라들이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복의 특징과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관용, 연대감을 위하여 콜라보레이션에 대하여 배우고 한복과 바틱의 하이브리드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한다. 셋째, 이해를 넘어 ‘연대의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웃소싱을 통하여 세계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이해하고 협동게임을 통하여 실질적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 : 모두 숙제 다 해왔나요? 옷장에서 어떤 나라들을 찾았나요?
 예 술 : 네,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숙제보다 이거 먼저 했어요
 현 수 : 생각보다 다양하던데요, 이상하게 동남아시아가 눈에 들어와요.
 가 회 : 저도 중국이 많긴 했는데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있으면 신이 나서 적었어요.
 연구자 :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자나요,

학생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동남아시아 지역을 발견하면 신이 나서 적었다고 하였다. 부지불식간에 지역에 애착, 장소감이 생긴 것이다. 이제 학생들에게 동남아시아지역은 그냥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게임을 한 후 학생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세계는 그 나라 하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태우의 일지)

오늘 게임을 하면서 협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세계가 협동을 해서 무슨 나라, 무슨 사람, 전쟁 등으로 편을 가르지 말고 함께 발전하고,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효진이의 일지 중)

언제나 학생들은 기대이상의 발전을 이루고 감동을 준다. 학생들이 삶 속에서 상호의존과 연대감의 어떻게 발현시키고 실천할 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수업을 통하여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을 하고 살고 있으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깨달을 수 있었다.

라. 4차 실행연구 및 반성 - 4단원 : 주거생활과 인간의 이동 - 공감과 배려의 실천 의지 - 확장된 글로벌 장소감

3차 실행연구를 통한 수업 반성은 ‘관용’ ‘배려’를 위한 실제적 경험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단원은 동남아시아의 주거 환경을 이해하고 ‘선택하기’ 시뮬레이션 활동을 통하여 집을 떠나 ‘이동’을 경험하는 기후 난민에 대한 세계적 책임감과 실천적 노력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선택하는 것이 어려웠다. 모두 중요한 것 같았고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생각 해보게 되었다. 나의 책임이 크다. 이제까지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환경을 생각 하면서 행동해야겠다. -준석-

나에게 이런 난감하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온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고르는 것이 어려웠다. 기후 난민에 대하여 나의 책임이 큰 것 같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자동차 이용 많이 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나에게 참 많다. 그들의 처지를 알았으며 힘든 것을 공감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도와야겠다. -서은-

학생들의 4단원 소감문은 지금까지의 소감문과 차별이 된다. 그 이유는 ‘알게 되었다’가 아니고 ‘생각이 들었고’ ‘느꼈고’ 앞으로 ‘~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다. 공감을 하였고 감정이 이입되어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생겼다.

3. 상호문화교류 학습의 효과

가. 바라보는 방식으로서의 지역이미지

상호문화교류수업을 실시하기 전, 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다. 상호문화교류학습 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무관심에서 ‘친구’, ‘친근’, ‘비슷한’ 나라 등으로 긍정적이면서 호의적인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사후 이미지

사전 동남아시아 이미지	사후 동남아시아 이미지
덥다. 뜨겁다. 태양 검정 피부, 몰라, 관심 없음 못 사는 나라, 바다 가난한 나라, 단조로운 나라	바틱. 친근, 여행지, 친구 비슷한 나라, 인도네시아 나무, 교류, 재미있는 나라 쌀을 먹는 나라,

나. 지오멘탈리티로의 지역이미지

지오멘탈리티 즉 심상지리적 지역 이미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경험, 관찰, 가치 등의 방식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이미지화된 결과를 말할 하며 이는 심상도(mental map)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가시화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사전, 사후 심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2> 사전·사후 세계 심상도 비교



학생들이 사후 심상도 그리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하였다. ‘선생님, 동남아시아를 크게 그려도 되나요?’ ‘어, 동남아시아가 커졌어.’ C그룹 연주의 사전 심상지도에서는 가운데 미국이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동남아시아는 그 옆에 붙어 있었다. 사후 심상도에서는 미국의 위치가 상당히 옆으로 물러가 있고 전에 비하여 한국의 크기가 커졌으며 동남아시아의 상대적 위치도 거의 비슷하다.

다. 글로벌 장소감으로서의 지역이미지

글로벌 장소감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우선 지역이미지 측정 설문지 사전,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5> 지역이미지 측정 준거에 따른 사전, 사후 비교

	사전	사후
평균	3.07	4.11
표준편차	.758	.439

지역이미지에 대한 전체 평균이 사전에는 3.07점 이었고 사후 검사 후에는 4.11점으로 나타나 사후 검사에서 글로벌 장소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문화교류학습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 지역 이미지 변화와 글로벌 장소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수업 후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수업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것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수업 과정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에 대하여 달라지는 마음 태도, 변화되어지는 생각 그리고 형성되어져 가는 글로벌 장소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B그룹 승연이의 이야기 - 글로벌 장소감 그리고 새로운 지역 관심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종족이다. 라고 거리감을 두고 썼던 것 같다. 그 동안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는 쌀을 많이 먹는데 그들은 빵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와 같이 주식도 쌀이고, 우리의 한복처럼 그들도 전통의상이 있으니깐 이제는 공통점이 많아서 친구처럼 사귀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쌀 러드 만들기 실습할 때 솔직히 조금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은 나의 식습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다양한 문화와 특징들을 배우면서 우리와 비슷한 점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보다 훌륭한 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는 ...중략... 우리는 동남아시아와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많은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면 그것에 대한 피해를 동남아시아 지역에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중략... 세계지도를 펼쳐보았는데 동남아시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보통 다른 나라에 대하여 잘 못 이해하고 특히 동남아시아가 우리보다 낫다거나 못하다고 비판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편견을 짝 버리고 우리보다 좋은 점을 많이 찾고 그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서로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나라들에 대한 문화들에 대하여 많이 알고 배웠으면 좋겠다.

A그룹 유진이의 이야기 - 확장된 글로벌 장소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서로 연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 모두는 세계의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은 모두 이 아프리카 아이의 고향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멘트를 들은 적이 있다. 교류 수업을 하면서 계속 그 말이 생각이 났다. 지구 온난화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세계의 세계에 책임감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회용품은 되도록 쓰지 않고 종이도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이야기들 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슷함’ ‘공통점’ 에 대한 부분이다. 동남아시아 지역과 ‘비슷함’ ‘유사점’ 을 찾게 되는 시점에서 그 지역에 대한 호감도, 친근함이 급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호 연관성, 관련성을 찾고 그것의 중요함을 깨닫는 노력이 글로벌 장소감 형성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글로벌 장소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장소, 지역과 지역 간의 상호연결 고리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Massey, 1994). 학생들은 상호문화교류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타 지역과 나의 지역의 유사성, 연결성을 확인하였고 지역이미지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는 글로벌 장소감 형성이 기본이 되었고, 글로벌 장소감으로 인하여 발달된 지역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더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 애정 그리고 유대감으로 나타났다.

V. 결론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해하는 ‘글로벌’ 은 한정된 경험으로 인한 특정 지역 중심의 세계화였다. 연구의 초점은 학생들이 균형 있는 지역이미지 형성이 되지 못 하고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된 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 편견이라는 시선으로 이해하고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

에 학생들 관심 밖 지역이었던 동남아시아와 ‘상호문화교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을 통하여 학생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동남아시아와 상호문화교류 학습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더 적극적인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문화개방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을 통하여 타문화 뿐 아니라 자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깊어졌으며 다양한 문화의 만남이 풍요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셋째, 동남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원인은 ‘모름’에서 오는 ‘거리감’이었다. 넷째, 상호문화교류는 그 방법적인 접근과 시도만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다. ‘교과서’가 아닌 ‘친구 만남’이라는 상황은 학생들에게 더 친근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섯째, 동남아시아로 시작한 흥미와 관심은 자다른 지역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이어졌고 세계를 받아들이고 연결시키는 사고의 폭이 확장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변화된 지역이미지는 글로벌 장소감으로 확장되었다. 지역이미지 변화의 원인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글로벌 장소감 형성이었다.

상호문화교류학습 통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형성은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연결되어졌으며 이는 글로벌 장소감과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만남을 통하여 학생들이 상호성을 이해하고 더욱 확장된 글로벌 장소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